Jeju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-Governing Province	보도자료	2026. 11. 10.(화) 배포 즉시 보도 가능		
농업기술원		기술지원조정과장	송효선	☎ 760-7510
		업무담당자	김승우	☎ 760-7522
		업무담당자	양지순	☎ 760-7514

제주 농업인상 수상자, 농업인 4명·단체 2곳 선정

- 키위 수출·감귤 재배기술·친환경농업 등 6개 부문 공로 인정 -

- 11일 조천체육관서 제31회 농업인의 날 기념대회 열고 시상 -

❑ **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제주 농축산업 발전에 기여한 농업인 4명과 단체 2곳을 '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상' 수상자로 선정했다.**

○ 시상식은 11일 조천체육관에서 열리는 '제31회 농업인의 날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대회'에서 진행된다.

○ 농업인상은 제주 농축산업 발전에 기여한 농업인과 단체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2010년부터 매년 수여하고 있다.

○ 농업기술원은 지난 9월 9일까지 농업 관련 기관·단체장으로부터 추천받은 개인 15명과 단체 3곳을 대상으로 서류·현장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확정했다.

❑ **올해 수상 부문은 ▲일반작물 ▲감귤 ▲친환경농업 ▲축산 ▲여성농업인 ▲유통가공 6개다.**

○ 일반작물 부문 수상자 한라골드영농조합법인은 국내에서 육성한 키위 품종의 재배농가를 조직하고, 생산·유통 분업체계를 구축해 공동브랜드를 육성했다. 지난해에는 스위트골드 키위 수출농가 15곳을 발굴·육성하고, 150톤을 해외에 판매해 수출액 61만 4,000달러를 기록하는 등 제주 키위산업의 경쟁력을 높였다.

○ 감귤 부문 수상자 허철훈 씨는 감귤의 상처 발생을 줄이는 노지 방풍망 시스템을 개발해 특허를 출원했다. 소비자가 선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호하는 균일한 크기의 중소형 감귤 생산에 주력해 3.3㎡당 생산량 37.5kg, 조수입 20만 원을 달성하는 등 고품질 감귤 재배기술 확산에 기여했다.

○ 친환경농업 부문 수상자 김효준 씨는 무농약·유기농 재배를 실천하고 천적을 활용한 친환경 재배기술을 보급했다.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와 유통 기반을 넓히고,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한 활동에도 힘썼다.

○ 축산 부문 수상자 강방철 씨는 고품질 양봉산물 생산과 새로운 양봉기술 보급에 앞장섰다. 양봉시설 현대화와 과학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고, 농가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제주 양봉산업 발전에 기여했다.

○ 여성농업인 부문 수상자 원남정 씨는 딸기·애플수박·노지감귤을 재배하며 생산·체험·직거래를 연계한 농촌융복합산업을 통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였다. 여성농업인 단체 활성화와 권익·복지 증진, 지역사회 나눔 활동에도 앞장섰다.

○ 유통가공 부문 수상자 제주삼다알로에영농조합법인은 알로에 고유 성분을 보존하는 비파괴 생산공정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확보했다. 유기농산물·유기가공식품 인증도 취득해 안전한 먹거리를 소비자에 공급했다.

❑ **김태균 제주도 농업기술원장은 “제주 농축산업 발전에 헌신한 숨은 유공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여 나가겠다”고 말했다.**